

XI

하와이 이주민 안원규의 사회·경제적 삶과 민족적 활동 (1903-1947)

조 규 태
한성대학교

하와이의 한상이며 독립운동가, 안원규

안원규는 20세기 전반 미주지역의 대표적 한상^{韓商}이며 독립운동가이다. 상인 출신으로 하와이에 건너간 그는 양복점과 시계수리점 등을 경영하여 자금을 모은 후 중한제장회사^{中韓製醬會社}를 경영하는 사업가로 성장하였다. 1909년 대한국민회의 창립을 주도한 그는 1910년 2월 1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그해 4월 총회장을 대리하는 등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1940년대 초반 미주지역의 분열된 한인을 통합하고자 국민회와 동지회 등 한인단체를 통합하여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43~1944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의사장과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대한인국민회 등 한인단체를 통한 민족운동과 수십 년 동안 수십 차례의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한 공적으로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¹⁾

이처럼 안원규는 하와이 이주 한인의 상업사 및 하와이지역 한인의 대한인국민회 활동, 그리고 정치세력과 정치노선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인물이다. 또 1940년대 재미한인의 통합 활동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결성과

운용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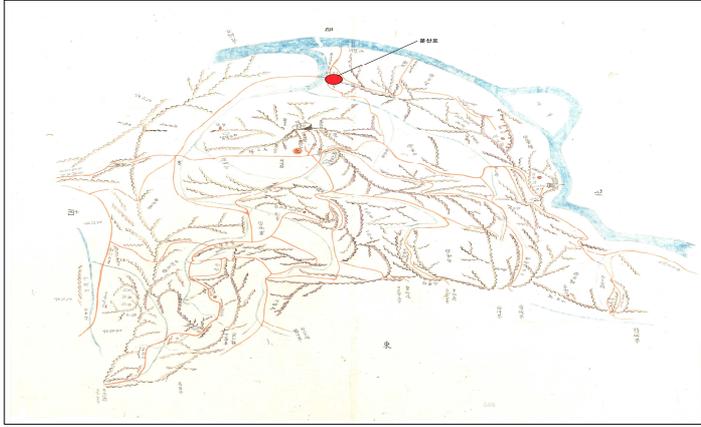
그렇지만 안원규에 대한 전문적인 논문은 아직 없다. 소략한 그의 약전^{略傳}이 소개되었고²⁾, 대한국민회와 대한인국민회의 성립과 활동,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등 1940년대 재미한인의 독립운동을 다루면서 그의 이름과 활동이 거론된 정도이다.³⁾

그래서 하와이 이주민 안원규의 사회·경제적 삶과 민족적 활동을 검토하여 그의 개인적 꿈과 민족적 이상의 실현 과정을 알아보려 한다. 먼저 그의 출생 및 성장과 하와이 이주 배경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다음으로 하와이에서의 그의 신앙 및 결혼 생활과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이어 1906년에서 1920년대까지의 대한인국민회 등의 한인단체 활동에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1930~40년대 한인통합 및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활동을 살펴보고 하겠다.

출생 및 성장과 하와이 이주

안원규는 1877년 8월 30일 서울의 통안에서 안문학^{安文學}과 어머니 정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남동생으로 안원근^{安元根}(1887년생), 여동생으로 마리아(1889년생)가 있었다.⁴⁾ 통안은 종로구 원남동에 있던 마을로 統內라고도 불렀는데 배오개에서 박석고개에 걸쳐 있었다.⁵⁾

안원규는 1889년부터 1902년까지 경기도 파주군 문산포^{汶山浦} 상리에 거주하였다.⁶⁾ 문산포는 조선시대 초인 1495년에 파주목 문산읍이었다가 1899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파주군 칠정면 문산리로 변경되었다. 문산포는 임진강을 통해 한양, 장단, 개성, 연천, 포천, 철원, 평강 등에 각종 물자를 공급하는 집산지였다. 문산시장은 일제강점기 파주를 대표하는 대시장이었다고 한다.⁷⁾ 문산포가 임진강과 한강을 통한 수상교통의 요충지였음은 1872년 파주군 제작 「파주지도^{坡州地圖}」와 네이버지도에서 확인된다.



〈도 1〉 『파주지도』(1872)의 문산포文山浦



〈도 2〉 네이버지도의 문산읍

안원규가 1889년부터 1902년까지 문산포에서 살았던 것은 아버지가 경강상인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일 것 같다. 안원규는 16살이던 1893년부터 25살이던 1902년까지 문산포에 거주하며 상업에 종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⁸⁾ 거주지로 보아 그 업종은 어물전이었을 것이다.⁹⁾

경강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근대적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흥사단

입단 청원서에서 그는 ‘학예^{學藝}: 국문^{國文}’이라고 하고, 특별한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¹⁰⁾ 그런데 그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그는 한글과 한문을 자유롭게 읽고 썼다. 어려서 서당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무렵 그는 결혼하였던 것 같다. 당시 나이가 결혼할 나이였고, 하와이 입국 기록에도 결혼하였다가 사별한 것으로 되어 있다.¹¹⁾ 입국 전의 부인이 누구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안원규는 하와이 한인 이주의 물결에 올라탔고, 1903년 3월 3일 캡틱 Coptic호 편으로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¹²⁾ 1881년 건조되어 Ocean Steam Navigation Company가 운영한 캡틱호 S. S. Coptic는 처음에 영국의 리버풀과 미국의 뉴욕 사이를 운항하다가, 1895년부터 샌프란시스코와 극동지역을 운항하였다. 운항 노선은 처음에 고베-샌프란시스코였다가 1900년부터 시모노세키-샌프란시스코로 변경되었다.¹³⁾ 이 지역을 운항한 화물여객선처럼, 캡틱호도 중국 홍콩 - 상해 - 나가사키 - 고베 - 요코하마 - 하와이 - 샌프란시스코의 항로로 운항하였을 것이다. 제1차 하와이 이주 한인의 여정으로 미루어 보면, 안원규는 1903년 2월 경 인천을 출발하여 고베^{神戸}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캡틱호에 승선하여 하와이에 도착하였을 것 같다.

『재미한인사략』에 의하면, “(1903년) 3월 3일 기선 캡틱 선편에 제2차 한인 이민 63인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여 오아후 도^島의 ‘히구 농장’에 주점하였다.”고 되어 있다.¹⁴⁾ ‘히구 농장’이 어딘지 확인되지 않는데, 캡틱호로 함께 입국한 차흥순^{Cha, Heung Soon}이 ‘와이삐’^{Waipio}: 필자에 거주하였던 점¹⁵⁾과 안원규가 1906년 와이파후공동회를 조직하였던 점으로 보면, 그는 오아후의 와이파후^{Waipahu} 지역에서 사탕수수 경작 노동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와이파후에는 1897년에 설립된 오아후설탕회사^{Oahu Sugar Company, Ltd}가 소유한 오아후사탕수수농장^{Oahu Sugar Cane Plantation}이 있었다. 오아후사탕수수농장은 호놀룰루로부터 서북쪽으로 15마일 떨어져 있고, 12,260.33에이커 중 11,530.68에이커의 대토지에서 사탕수수를 경작하였다. 관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300,845.74톤의 설탕을 생산하고, 관개가 이루어진 1928년 이후에는

596,550.46톤의 설탕을 생산하여 하와이 전체 생산량의 8%를 차지하는 대농장이었다.¹⁶⁾ 1915년 당시 하와이 노동자의 생활 유형은 주급노동자^{wage hands}가 24,468명(56.63%)였고, 도급계약노동자가 15,121명(35%)이었고, 사탕수수를 심는 일당노동자^{planters}가 3,619명(8.38%)였다. 한국인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도급계약 노동자가 많았는데 이들의 임금은 사탕수수의 가격에 좌우되었다. 1905년 당시 일당노동자 및 주급노동자는 일당 65센트를 받았고, 도급계약노동자는 평균적으로 하루당 83센트의 수입을 거두었다. 당시 그도 비슷한 임금을 받았을 것이다.¹⁷⁾ 그는 이 와이파후의 오아후 슈거 플랜테이션에서 1~2년 정도 일을 하였다.¹⁸⁾

신앙 및 결혼 생활과 경제적 활동

와이파후의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하던 안원규는 1904년 경 감리교에 입교하였다. 하와이의 한인들은 1903년 11월 3일 안정수와 우병길이 피어슨 감리사와 교섭하여 11월 10일 리버 호텔 스트리트에서 집을 얻어 한인전도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보았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04년 3월 2일 엠마 스퀴 스트리트에 예배당을 설립하고, 1904년 5월 1일 하와이한인감리교회의 우병길^{禹炳吉}이교담^{李教潭}임동주^{林洞柱} 등이 각 농장으로 보내어 전도를 시작하였다.¹⁹⁾ 그의 입교는 와이파후 농장에 찾아와 전도하던 이들의 설교와 관련이 있었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하와이의 가난한 한국인 이민자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기독교의 신앙에 감동되었던 것 같다.

그는 기독교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여 1906년 3월 경 와이파후에서 전도사^{local preacher}로 활동하였다.²⁰⁾ 1904년 말 와이파후에는 36명의 감리교인이 있었고²¹⁾, 1905년 8월 와이파후에 예배당이 설립되었다.²²⁾ 1905년 12월에는 김이제가 목회자로 활동하였다.²³⁾ 그는 이곳에서 김이제와 함께 혹은 그를 이어 전도사로 교임을 수행하였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던 1906년에서 1908년까지의 시기에 안원규는 최윤심(崔潤心)(1885)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²⁴⁾ 감리교회에서 신앙 활동을 하던 것이 인연이 되어 배필을 만난 듯하다. 최윤심은 북감리교 신자인 이승만의 심복으로 미혼 남성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국내로 파견되어 서울 시내 예배당에서 여성들에게 하와이 이주를 권유하는 활동을 한²⁵⁾ 기독교인이었다.

1909년 안원규는 최윤심과의 사이에서 딸 안월라(安月羅)(안벨라)의 탄생을 보았다.²⁶⁾ 안벨라는 1913년 11월 28일 오전 딸 리버스트리트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해 퀸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나²⁷⁾ 잘 성장하였다.

안원규는 1914년 4월 한인기독교청년회의 조직에 참여하고 그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김종학 이태수 이승만 박상하 박용만 신흥균 한재명 흥한식과 함께 이사부의 이사였다. 그리고 그는 장재로서 회장 이승만, 부회장 박상하, 서기 흥한식과 함께 활동하였다.²⁸⁾

감리교 기독교청년회원이었던 안원규는 1914년 백인 및 일본인 기독교청년회원 함께 활동하였다. 당시 하와이이에서는 감리교 기독교청년회원이 백인 1,420명, 일본인 200명, 한국인 90명이 있었는데, 안원규는 1914년 5월 5일 백인 기독교청년회에서 주최한 만찬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²⁹⁾

1919년 안원규는 이정송(李貞松)(안정송, 1895-)과 다시 결혼을 하였다.³⁰⁾ 평남 평양 출신인 이정송은 1910년 평양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정의소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1913-14년 평양 진남포 삼승여학교 고등과 교사, 1914-15년 이화학당 교사, 1915-16년 경기도 수원 삼일여학교 고등과 교사를 역임하였다. 1916-17년 일본 요코하마 여자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918년 평양여자신학교의 사감 겸 교사를 맡았다. 그녀는 1919년 하와이로 이주하여 안원규와 결혼하였다.³¹⁾

안원규는 이정송의 소생으로 1남 3녀를 두었다.³²⁾ 그러니까 안원규의 자녀로 최윤심이 낳은 장녀 안월라(안벨라) 외에, 이정송이 낳은 장남 안정도, 차녀 안숙자(안플로렌스, 이숙자), 삼녀 안숙명(임숙명), 4녀 안숙화가 있었다.

장남 안정도는 매킨리중학을 졸업하고 1945년 2월 11일 이범석의 딸과 결혼하였다.³³⁾ 1920년 경 출생한 차녀 안숙자(이 플로렌스)는 1937년 여름 하와이의 매킨리중학교를 졸업하고 남캘리포니아 음악전문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하였다.³⁴⁾ 삼녀 안숙명은 1945년 임준호의 차남 임성희와 결혼하였다.³⁵⁾ 그리고 막내딸 안숙화는 하와이에서 루즈벨트중학교를 졸업하고, 하와이대학에서 2년간 수학한 후 페링턴 중학교에서 2년간 교사 생활을 하였다. 그녀는 1945년 버몬트주 베링턴여자대학에 편입하여 1947년 여름 졸업하였다.³⁶⁾

사탕수수농장 일을 1년 정도 만에 그만 둔 안원규는 1904년부터 1907년까지 잡화상을 경영하였다.³⁷⁾ 상업에 종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와이파후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쌀과 식료품 등의 필요 물품을 제공하여 주었던 것 같다.³⁸⁾

그는 1907년부터 재봉업에 종사하였다.³⁹⁾ 특히 1909년에 들어서, 그는 2월 12일 이후 자주 『신한국보』에 광고를 실어 양복점의 이용을 호소하였다. 그 광고에서 양복점을 개설한 이후로 동포의 사랑과 돌봄에 힘입어 사업이 확장되었다고 하고, 재봉을 매우 정밀하게 하고 염가로 판매하니 와서 사용하기를 청하였다.⁴⁰⁾

한편 안원규는 1909년 11월 양복점 안에 ‘시계개선소(수리점)’를 개설하고 각종의 시계를 수리하였다. 그는 광고를 통해 외국인에게 가지 말고 자신을 찾아오라고 호소하였다.⁴¹⁾ 그렇지만 시계개선소는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

한편 안원규는 하와이 거주 동포와 한인단체의 구성원 및 중국인들과 함께 상회 및 회사를 운영하였다. 먼저 그는 1909년 2월 경 하와이 각주에 거주하는 동포의 물품 수요를 편리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익취집사(共益聚集社)를 창립하고 장정을 발표하였다. 그는 『신한국보』에 1909년 2월 12일부터 1909년 8월 17일까지 광고를 실어 한인 동포의 참여를 독려하였다.⁴²⁾ 그렇지만 한인 동포의 호응이 미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안원규는 1913년부터 박종수(林鍾秀)와 파인애플 농장을 도급받아 경영하였다.

박종수는 1912년 11월 아들 박관주^{林寬柱}의 도움을 받아 편지를 번역한 후 카할루 지역의 농주 월터를 찾아 전 100에이커를 도급받아 경영하였다. 그런데 월터가 박종수의 근심함을 보고 그에게 5곳 1,300에이커 농장을 경영하기를 청하였고, 박종수는 260에이커를 경작하기를 희망하였다. 그 도급 비용은 박윤옥^{林允玉}이 대기로 하였으나 중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때 안원규가 그 비용을 제공하기로 하여, 결국 안원규는 대한인국민회 법무원 박종수^{林鍾秀}와 오아후 카할루 지역의 립비엔모넬^{Libby&Monell}사 소유 파인애플농장 400에이커를 5년 계약으로 도급을 받아 경영하였다.⁴³⁾ 농장의 경영은 박종수가 매달 40원을 받고 경영하였다. 박종수는 20여 명의 한인을 고용하고, 200원에 말을 사고, 곡물상을 차려 매월 판매대금 1,500원의 5%인 75원을 추심하여 토지임대 비용에 충당하는 등 수입이 뛰어났다. 그런데 안원규는 장래에 군단을 설립하려고 도모하는 박용만을 만나 박종수와 도급받았던 그 토지를 박용만이 운용하려는 군단의 한인들에게 경작을 맡겼다.⁴⁴⁾

안원규가 경영하던 양복점은 계속해서 발전하였다. 안원규는 1914년 5월 경 킹스트리트에 있던 양복점을 더욱 확장하여 베레타니아^{S. Beretania}와 킹^{King}스트리트의 코너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 주무는 이호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⁴⁵⁾ 1914년 6월 경 그는 지점을 본점에 합하고, 본점 옆에 여자양복점을 아담스런 운치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⁴⁶⁾ 원래 이 여자양복점은 1914년 초 김유호가 자신의 양복점과 벽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였는데, 서양인을 고빙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하는 양복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여자들에게 양복재봉을 교수하였다.⁴⁷⁾ 그런데 안원규는 김유호가 운영하던 여자양복점을 인수한 뒤 김유호와 달리 서양인이 아닌 한국부인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⁴⁸⁾ 1914년 7월 안원규 양복점에는 전화가 가설되었는데, 번호는 5230번이었다.⁴⁹⁾ 1914년 말 양복재봉업에 종사하던 안원규의 자본액은 6,000달러에 이르렀다.⁵⁰⁾ 그런데 이 양복점은 1916년 3월 상하는 그대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송진현^{宋晉憲}에게 양도되었다고 한다.⁵¹⁾

안원규는 1916년 양복점의 양도 후 호놀룰루에서 ‘가옥 재임대업’을 하였다. 월수 약 80달러이고, 자산은 2,000달러에 달하였다.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한인 중에서 유수의 상인이었다.⁵²⁾

안원규는 1916년 9월 양친 방문과 관광, 조선잡화 구입의 목적으로 6개월 예정으로 귀국하려고 계획하였다. 그의 귀국 목적은 상업적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아울러 박용만의 대조선국민군단의 운영과 관련되어 군자금을 모집하고, 모국의 유지와 기막을 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한인도 있었다.⁵³⁾ 혹 부인의 치료를 위하여 귀국하였을 가능성도 있다.⁵⁴⁾

1916년 9월 경 그는 내무부장(內務部長) 우좌의(宇佐義)의 소개장을 얻어 귀국의 길에 올랐다.⁵⁵⁾ 정윤필(鄭允弼)과 춘양환(春陽丸)을 타고 호놀룰루를 떠난 안원규는 1916년 10월 9일 경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10월 11일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14일에 14년 만에 고향에 도착하였다. 그는 10월 22일 경성에 와서 기독교청년회 총무 윤치호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의 소개로 공업전습소, 미술품제작소, 공진회적(共進會跡) 상품진열소, 총독부의원 등을 참관하였다.⁵⁶⁾

조선에 머무르던 중 그는 11월 10일 밤粟 17석, 조개 젓갈 4석 5두, 달래蒜 12관총, 잡어 젓갈 30관총, 소두 5두, 조선 하건(下戩) 20족, 도라지桔 83근을 하와이에 거주하는 박원걸(朴元傑) 앞으로 송부하였다. 동 11월 26일 선약생지황 1근을 하와이에 거주하는 처에게 송부하였다. 그리고 그는 1917년 2월 3일 경성을 출발하여 요코하마에 도착한 후, 2월 23일 코리아(Korea)호를 타고 하와이로 돌아갔다.⁵⁷⁾ 1917년 3월 4일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였다.⁵⁸⁾

1920년대 초반 안원규의 재산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22년 양복재봉업을 하는 그의 자산액은 15,000달러에 이르렀다.⁵⁹⁾ 그리고 1923년 그의 재산은 무려 30,000달러였다. 그는 하와이에서 잡화상을 하는 40,000달러 재산가 정원명 다음의 두 번째 부자였다.⁶⁰⁾

1923년 안원규는 양복점을 카와이 하나페페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이주한 최두욱에게 넘겼다. 최두욱이 인수하여 운영하던 당시 이 양복점에서 고용한 직원은 30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⁶¹⁾

대신에 1923년 7월 안원규는 사우스 베레타니아^{S. Beretania} 346번지에 잡화점을 개설하였다. 이곳은 이전에 S. K. 송이 운영하던 곳이었다.⁶²⁾

1923년 7월 경 안원규는 하와이 거주 한인 중 자산액이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었다. 일본 척식사무국의 조사에 의하면, 잡화상을 하고 호놀룰루에 거주하던 정원명이 40,000원의 자산을 갖고 있었고, 양복점을 하던 그는 30,000원의 자산을 갖고 있었다.⁶³⁾

한편 안원규는 1919년 10월 중한장유창유한공사에 참여하였다. 이는 일본의 간장이 유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한국인과 중국인이 늘 사용하는 간장과 된장 등의 제조·판매 회사였다. 류복구가 발의하였고, 여양, 박윤옥, 만방루, 연방호, 장발전, 문창호 등이 찬성하여 설립되었다. 안원규는 설립 당시 임시 이사원으로 참여하였다.⁶⁴⁾

그리고 그는 1921년 10월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정원명, 정인수, 이호직, 정운서, 김경운, 이창준, 장봉희, 배인수, 유한흥, 안정송, 전영택, 서정일, 강영소 등과 한인장유회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안원규 등은 “우리가 남과 같이 우리의 제품을 세계 사람의 수용을 공급하고 거대한 이익을 취하지는 못할망정 내가 하루 세 때씩 변치 않고 쓰는 식료품을 남의 손에 공급을 받으면 그 손해는 얼마나 되며 그 불편은 얼마나 하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발기를 추진하였다. 자본금 총액은 10,000원, 한 주당 가격은 50원으로 정하고, 1921년 12월 25일 안으로 약정금을 납입하도록 하였다. 장유제조소는 호놀룰루 갈리히에 넓이 50척, 길이 172척의 토지를 매입하여 넓이 36척, 길이 60척의 건물을 지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안원규는 임시재무로 선임되어 주무원인 박윤옥과 함께 이 일을 주관하였다.⁶⁵⁾ 한인장유회사는 일화를 배척하던 한인이 사용하여 시세가 좋았다.⁶⁶⁾ 1922년 10월 경 하와이를 방문한 김윤수^{金潤洙}의 전언에 의하면, 그 규모가 일본인이 독점하던 일본장유회사를 압도하고 있었다고 한다.⁶⁷⁾ 그러나 기술이 부족하여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과 경쟁하지 못하고 4년 후에 폐업되고 말았다.⁶⁸⁾

또 안원규는 호놀룰루한인상업회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1921년 5월 안원규는 정원명 등 실업에 종사하는 20여인과 호놀룰루한인상업회를 조직하였다. 안원규가 회장이었고, 총무는 박승준, 재무는 정원명이었다. 장사하는 한인으로 구성되고 회원은 입회금 100원, 월회비 5원을 내야 하였다. 차차 합자적 영업을 하려고 계획하였다.⁶⁹⁾ 안원규는 1926년에는 호놀룰루상업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⁷⁰⁾ 호놀룰루한인상업회는 해방 후까지 존속하여 한인동포의 구제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⁷¹⁾

대한인국민회와 한인단체 활동

안원규는 1906년 3월 10일 전도원, 정상교 등과 환난상구^{患難相救}와 일화배척^{日貨排斥}을 내걸고 와이파후공동회를 결성하고, 그 회장으로 활동하였다.⁷²⁾ 1905년 말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하와이의 여러 지역에서 민족운동 단체가 조직될 때, 그도 와이파후농장에서 일하던 한인들과 상호 환난을 구제하고, 일화의 사용을 줄여 한인 상점을 살리기 위해 이 단체를 만들었던 것이다.

1907년 8~9월 하와이의 한인단체들이 통합운동을 벌여 합성협회를 설립하였을 때 그도 동참하였다. 그는 1907년 8월 말 전도원과 와이파후 공동회의 대표로 총 24개 단체 30명이 호놀룰루에 모인 합성협회의 합동발기대회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는 5일 동안의 회의를 통해 합성협회를 설립하였다. 이 합성협회는 조국의 국권회복운동을 후원하며, 재류 동포의 안녕을 보장하며, 교육사업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각 단체에서 발간하던 신문을 통합하여 『한인합성신보』를 발간함으로써 실력을 집중하고, 언론을 일치시키고자 하였다.⁷³⁾

안원규는 1908년 4월 일본의 조선 통치를 변호한 스티븐스를 죽인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던 장인환과 전명운을 변호하는 활동을 선도하였다.

임시공동회에 참여한 그는 재무로서 자금 모집을 주관하였다. 자신도 5원을 기연한 안원규는 총 200원의 약정서를 받고, 당시 116원 80전을 모금하였다. 이 중 85원 70전을 장인환·전명운 의사의 구원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1원 10전을 샌프란시스코의 공동회에 송금하였다.⁷⁴⁾

1908년 4월 23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해리스가 “조선은 금후 일본의 지도하에 발달해야 할 것을 대통령에게 진언하였다는 보도”가 알려지자 그는 항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심지어 1908년 5월 1일 안원규가 김건호(金建鎬), 이내수(李來洙), 이성실(李成實), 박원기(朴元基) 등과 해리스감독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⁷⁵⁾

그는 1908년 말에서 1909년 2월 초 하와이 합성협회와 북미의 공립협회를 합하여 대한국민회를 조직하는 데 참여하였다. 1908년 11월 30일 하와이 합성협회와 북미의 공립협회의 합동을 발기하였을 때 안원규는 고석주·김성권·민찬호·이내수·강영소·한재명과 함께 한인합성협회의 대표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안원규는 제석주·김성권과 합성협회 측 규칙기초위원이 되어 공립협회의 규칙위원 3명과 회동체 명 (대한)국민회를 정하고, 규칙을 만드는 활동을 벌였다.⁷⁶⁾ 그리고 1909년 2월 1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창립식에 참여하였다. 다음 <사진 1>의 첫줄 가운데가 안원규이다.



<사진 1> 하와이지방총회 임원(1909), 국가기록원

1909년 2월 19일 한일합병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에서 대동회를 개최하여 이를 막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을 때 그는 참여하였다. 공동회에서는 동경에 있는 송병준과 서울에 있는 이완용에게 전보를 발송하여 그 음모를 막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⁷⁷⁾ 그는 이 활동을 위한 경비를 모금하였을 때 1원을 기연하였다.⁷⁸⁾

1909년 3월 대한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안원규는 하와이지방총회장 정원명 등과 '식산흥업회'를 창립하고 활동하였다. 사장은 대한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총회장인 정원명⁷⁹⁾이었고, 안원규는 감사위원이었다.⁸⁰⁾ 이 식산흥업회는 자본금을 모아 하와이의 각 지방에서 땅을 빌려 사탕수수과 커피를 직접 재배하거나 재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수익을 거두려고 하였다. 그 첫째는 빅아일랜드 코나의 훌나올로나 지방에서 한인 18인이 사탕수수밭 80에이커를 얻어 경작하는데 필요한 경비 1,000원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80에이커를 한 사람당 6.75에이커씩 분배하여 사탕수수를 경작하여 생산된 사탕으로 대금 1,000원을 상환받고, 이익을 나누고자 하였다. 둘째는 코나 근방에서 땅을 빌려 커피를 경작하여 소매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자 하였다. 셋째는 식산흥업회가 코나에서 직접 토지 100에이커를 빌려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니 자본금을 한 구좌에 10원씩 모집하여 수만 원의 자본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⁸¹⁾

1909년 6월 하와이지방총회장 정원명이 퇴각하고 이내수^{李來洙} 총회장체제가 출범하였을 때 그는 부회장에 선임되었다.⁸²⁾ 그러면서 그는 하와이 와이파후지방회에 속하여 활동하였는데, 1909년 8월 하와이에서 발간되던 『신한국보』의 발간을 돕기 위하여 1원을 기부하기도 하였다.⁸³⁾

1909년 8월 31일 안원규는 하와이에서 발간되던 영자신문 애드버타이저에 샌프란시스코의 전보^{傳報} 형식으로 사진과 기사가 소개되었다. 국민회 부회장 안원규의 사진이 고종황제 및 순종황제의 사진과 함께 실렸고, 안원규는 한인애국의사의 향도자로 소개되었다.⁸⁴⁾ 이는 하와이 한인에게 안원규가

고종황제 및 순종황제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친황적 인물임을 알리면서, 안원규에게 친황적 한인애국의사로 활동하게끔 하는 압력이었다.

1910년 안원규는 김성권 하와이지방총회장 시기 재무로 활동하면서⁸⁵⁾, 1910년 10월 경 한국과 하와이 간의 국제무역을 실시하는 한포무역주식회사의 재무 겸 사무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주당 10원의 주식으로 자본금 10,000원의 한포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국내에서 백하젓^{새우젓}, 굴젓, 암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백하젓은 매 근에 12전 반, 40근 한 통에 5원, 암치는 매 근에 15전이였다.⁸⁶⁾

또 그는 1910년 7월 5일 정원명, 이내수, 민찬호 등과 하와이 각 지방의 대표를 호놀룰루에 모아 대동공진단^{大同共進團}을 조직하였다. 안원규는 재무였고, 단장은 정원명이였다. 정원명은 1909년 2월 8일 우체원^{郵遞院}의 주사로 파견된 근황적 인물로 1908년 합성협회의 회장, 1909년 대한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⁸⁷⁾ 대동공진단은 일제의 대한국병합에 대한 반대와 독립전쟁의 전개를 위한 군인 양성을 결의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 추진되지 않아 국민회의 군인 양성 사업으로 변환되었다.⁸⁸⁾ 한편 그는 1910년 8월 무렵 국내에서 발간되던 『대한흥학보』를 위하여 제2차로 3원을 기연하였기도 하였다.⁸⁹⁾

1911년-12년 안원규는 하와이지방총회의 법무원과 농상무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11년 정칠래지방총회장 시기 법무부 역원(임원)이였다.⁹⁰⁾ 그리고 1912년 2월 대한인국민회임원 선거에서 안원규는 하와이지방총회의 법무에 선임되었고⁹¹⁾, 신설된 농상공부의 책임자로 선정되었다.⁹²⁾

1913년과 1914년에도 그는 농상무원으로 활동하였다.⁹³⁾ 그는 도급농지의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한편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을 양성하려는 박용만의 둔전병적 군인양성⁹⁴⁾을 후원하였다. 앞서 살폈듯이 그는 1913년 박용만과 박종수의 도급농지 확보를 후원하였다. 또한 그는 1914년 2월 2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기념식 때 군인의 사열행진의 장관을 목격하고 파인애플농장을 군단에 들이겠다고 언약하였다.⁹⁵⁾

한편 안원규는 1911년 3월 4일 하와이지방총회의 사업으로 전前 하와이 지방총회장 정원명, 하와이지방총회 재무 한재명 등과 같이 한인농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안원규는 한 주당 10원으로 1만주를 팔아 자본금 10만원의 한인농상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⁹⁶⁾ 그는 1913년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장 박상하가 농상무원 안원규 및 자본주가 회동하여 임원을 선정하였을 때 사무원으로 선출되었다.⁹⁷⁾ 1915년 안원규는 사장 박용만 밑에서 부사장으로 활동하였고, 한인농상주식회사는 수익이 별로 없어서 1915년 11월 폐쇄되고 말았다.⁹⁸⁾

그런데 이 한인농상주식회사는 안원규가 박용만, 이주연^{李周淵} 등과 함께 병학교의 설립·운영을 위한 자금 모집의 통로로 활용되었다. 이주연^{李周淵}은 박용만이 동경에 유학 중 알던 사이였는데 국내의 각지와 블라디보스톡, 중국의 상해 등지를 유력하며 자금을 모아 물건을 구매한 후 안원규가 사장으로 있는 한인농상주식회사에 보내었다. 그러면 안원규가 그것을 시중에서 팔아 자금을 마련한 후 박용만에게 제공하였다.⁹⁹⁾

이뿐만 아니라 안원규는 1913년 가을 한인중앙학원 학생으로 구성된 학도대를 위해 군복을 만들어 제공하였다. 1913년 가을 한인중앙학원은 남자 81명, 여자 18명 등 99명으로 4개 소대, 2개 중대, 1개 대대를 편성하였다. 당시 학도대는 카키색 군복과 흰 무명 군복 각 1벌을 학생에게 입힐 작정이었는데 안원규는 자신의 양복점에서 카키색 군복을 만들어 한인중앙학원에 납품하였다.¹⁰⁰⁾ 카키색의 군복은 미국 육군사관학생의 군복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고, 미국 육군병 및 네브라스카 소년병학교의 복장과 유사하였다. 다만 바지를 조금 다르게 하여 무릎 아래를 단추로 채우거나 노끈으로 엮지 않고 평복처럼 하였고, 그 위에 행전을 차게 하였다.¹⁰¹⁾

1915년부터 수년간 하와이지방총회가 내분에 휩싸였을 때 그는 하와이 지방총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이승만이나 박용만·김종학의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그가 다시 하와이 한인단체를 위하여 활동한 것은 1921년 3월 하와이지

방총회가 해체되어 하와이 대한인교민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던 때였다. 1921년 2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총무에 선임된¹⁰²⁾ 그는 1921년 3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를 해산하여 하와이 대한인교민단으로 재조직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그리고 그는 1921년 3월 21일과 22일 임원 선거를 거쳐 부단장에 선임되었다. 총단장은 민찬호였다.¹⁰³⁾

1923년 안원규는 민립대학기성과 물산장려운동을 후원하였다. 그는 1923년 7월 8일 누아누 청년회관에서 하와이민립대학기성후원회를 조직하고 재정모집원으로 활동하였다.¹⁰⁴⁾ 또 1923년 8월 안원규는 한인 상인들을 중심으로 물산장려운동후원회를 조직하고 이사원으로 활동하였다.¹⁰⁵⁾

한편 그는 강연 활동을 통해 한인의 경제력 증진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3년 4월 28일 호놀룰루청년회관에서 백여 명의 한인 남녀 학생 앞에서 연설을 하였다.¹⁰⁶⁾ 그리고 1924년 3월 1일 교민단 주최의 '3·1절 기념식'에서 <경제적 독립>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¹⁰⁷⁾ 그리고 1925년 3월 2일 교민단 주최의 3·1절 기념식에서는 「오인 생활의 방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¹⁰⁸⁾

안원규는 1923년 감리교의 교인과 감리교학생기숙소를 건설해주었다. 하와이의 감리교 유력 인사들은 여러 해 동안 감리교학생기숙소의 설립을 희망하였으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7월 29일 감리교 임원회의에서 우선 남학생 기숙소를 먼저 설립하기로 하고, 이 일은 안원규가 현순, 이태성, 강영각과 함께 주선하기로 하였다.¹⁰⁹⁾ 그리하여 1923년 9월 10일 아침에 상량식을 거행하였다. 이 기숙소의 감독은 현순 목사이고, 간사는 강영각이었으며, 안원규는 정원명, 남세운, 김이제, 현선, 박세환, 변성원 등과 이사부원으로 활동하였다.¹¹⁰⁾

1924년 5월 안원규는 교민단의 임원으로 민찬호, 곽래홍, 양유찬, 김영기 등과 국내 야구단을 초청하여 기념시합을 갖는 행사를 벌였다. 그는 본국에서 하와이를 방문한 야구단을 환영하는 행사를 갖기로 하고 1,50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다.¹¹¹⁾ 그리고 6월 17일 국내 야구단이 하와이를 방문하자 이들의 기숙과 연습을 후원하였다.¹¹²⁾

한인통합 및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활동

이승만이 탄핵되고 네 달이 지난 1925년 7월, 태평양회의에 참석하였던 서재필박사가 하와이를 방문하여 하와이의 주요 한인 인사들이 모여 한인의 단합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였을 때 안원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¹¹³⁾

이승만(전 대통령): 나는 모든 일을 잘하라고 하였고 아무튼지 혐의가 없소. 이렇게 모이는 것은 서박사나 계시면 될는지? 우리끼리는 어렵소.

현순(감리교 목사): 장래 우리일을 더 잘하려면 백성을 속이지 말고 참빛으로 인도할 것이요, 인도자라는 사람이 서박사가 와 모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네끼리 스스로 모여서 의미도 있고 담화도 하여야 되겠으니 이박사부터 시작하면 나같은 가난한 자도 찬잔이나 준비하여 모으겠소. 또 무슨 정책이 있거든 두어사람만 모여서 우물쭈물 하지말고 공중에 나와서 정견을 발표하여 봅시다.

황사용(감리교 목사): 나는 시골사람인 고로 시골인심을 잘 알우. 시골사는 한인들은 우리 하와이에서 한인 가운데 여러 단체가 있더라도 자기 기관이 하나만 되기를 원합니다.

안원규(실업가): 합한다고 하면 도로 해가 많소. 그러므로 합한다는 말은 그만 두고 우선 이곳에 모인 사람부터 정의를 돈독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내라도 먼저 음식을 차리고 당신들을 청하겠습니다.

박용만(독립단 영수): 우리는 다 실패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은 물러가는 것이 이치에 상당하니 실패한 우리는 물러가고 청년들에게 맡겨서 일을 진행합니다.

민찬호(기독교 목사): 나는 말은 좋아 아니하고 일만 좋아하는 사람이올시다.

이승만(전 대통령): 모이기는 무엇을 모인단 말이요. 마음은 고치지 않고 모이면 무슨 일이 되오. 그런즉 여러분이 회개들 하시오.

신흥우(본국 대표): 당신네들을 먼 데서 망원경을 끼고 들여다 볼 것 같으면 다 땀풀들이요.

이처럼 대동단결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의 한인 대표자들이 분열하는 것을 보고 안원규는 우선 서로 정의를 돈독히 하고 화목하여 지내자고 하였다. 그는 사업가다운 태도로 쉬운 친목을 도모하는 일부터 먼저 추진하자고 하였다.

안원규는 1928년 교민단의 대표로 대한민족통일촉성회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대한민족통일촉성회는 “① 전 민족정신을 단결하여 운동의 전선을 일치시킨다. ② 전 민족의 역량을 집중하여 대업의 책임을 다한다. ③ 전 민족의 이상을 종합하여 국가건설을 선미^{善美}게 한다.”는 강령을 실천하려 한 단체였다.¹¹⁴⁾ 그는 1928년 4월 경 이 촉성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동년 5월 누아누 청년회의 한인부 고문 대표로 이 촉성회의 서무부의 7인 집행위원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¹¹⁵⁾

이어 그는 1930년 독립운동의 촉진을 위하여 하와이 한인협회의 조직에 참여하였다. 1930년 1월 13일 발기된 하와이 한인협회는 “민족주의에 기인하여 대한독립운동을 촉진함”을 주의로 하였고, “임시정부로 중력을 집중함”, “운동의 방략은 최후 1인 최후 1각까지 분주함”, “독립당 통일을 기성함”을 정강으로 하였다.¹¹⁶⁾ 한인의 통합을 염원하였던 안원규는 1930년 4월 3일 동지회, 독립단, 교민단 등의 대표들이 하와이 한인의 통일을 위한 만찬회를 개최하였을 때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하였다.¹¹⁷⁾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1936년 4월 국내에서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자, 안원규는 하와이의 한인들과 이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현순, 김이제, 한길수, 조정천, 정원명, 이태성, 손창희 등과 “한국교회를 핍박하여 신교자유를 불허하는 위헌적 비법행동^{非法行動}이라.”고 격분하여 교회연합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일본에 대한 항의요구서를 미국 대통령, 상의원하의원, 각 교회와 각계 명사에 보내는 활동을 하였다.¹¹⁸⁾

1937년 중일전쟁의 발생 후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원 활동을 벌였다. 1937년 8월 “혈성금의 모집, 예비군의 등록과 훈련” 등을 요청하는

〈임시정부특전〉을 받고¹¹⁹⁾, 부회장 안원규는 회장 등과 공동회, 국민대회, 유지인사모임 등을 통하여 혈성금을 모아 임정에 지원하기로 하였다.¹²⁰⁾ 이어 안원규는 8월 15일 국민대회에서 사회로 혈성금 모금 결정을 도출하였고¹²¹⁾, 자신도 매달 2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하였다.¹²²⁾ 그리고 1937년 9월 26일 호놀룰루선교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혈성금의 모집에 기여하였다.¹²³⁾

중일전쟁의 발생 후 그가 벌인 또 다른 활동은 하와이 한인사회의 통합이었다. 1937년 9월 그는 “어느 민족이나 합동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도 이번에 전국이 합동된 까닭에 저 전쟁을 저만큼 잘하는 것이니 우리도 합동합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 극소수 사람이 합동을 반대하니 일반인들이 합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발표하자고 하였다.¹²⁴⁾ 1937년 10월 8일 안원규는 대한인국민회 총임원회에서 “임시정부를 봉대하여 독립운동을 극력 후원하려는 이유로 명칭과 직원 등 문제에 구애되지 않고 무조건적 절대 합동을 주장할 것”이란 결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런 의사를 동지회에 공문으로 알리고, 박종수박상하정인수를 ‘제2단 교섭위원’으로 정하여 합동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모았다.¹²⁵⁾

1937년 10월 국민회와 동지회의 합동 문제에 있어, 안원규는 합동이 법칙상 문제가 아니고 도덕상 문제이니, 합동의 전제조건은 심리개량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합동의 방해자와 큰일의 마귀가 되지 않기를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권유하였다. 그 내용은 “① 남이 지는 책임을 혹 내가 회피하거나, 남에게 가는 공로보다 더 많은 공로를 내가 자허_{自許}하지 않는가? ② 나는 다 잘하는데 남이 다 잘못한다는 망상으로 도덕과 예모_{禮貌}를 손상치 않는가? ③ 빙공영사_{憑公營私}의 술책으로 개인과 개인을 이간하고 단체와 단체를 추격하지 않는가?”였다.¹²⁶⁾

대한인국민회 대의장 안원규는 1937년 11월 26일 총회관에서 임시대의회를 주재하여 국민회와 동지회의 합동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행정부에게 동지회의 적법 대표들과 합석하여 이 사항을 토의하게 하였다.¹²⁷⁾

안원규는 1938년 3월 13일 오후 7시 반에 총회관에서 개최된 <고 도산 안창호선생 추도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민회의 동지들과 안창호를 추도하고, “우리 2천만 형제자매는 선생의 뜻을 이어 우리의 대업을 완성키로 새로운 두터운 맹세를 지을지이다.”라며 선생의 광복을 향한 뜻을 계승하기로 하였다.¹²⁸⁾

1938년 11월 18일에서 12월 7일까지 13차로 전개된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의 통합을 위한 연합회의에서 안원규는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비록 뚜렷한 합동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합동운동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¹²⁹⁾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40년 9월에는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 간의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통합운동의 결과, 1941년 4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해외한족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안원규는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 4월 20일 안원규는 대회 위원과 함께 개회를 선언하고 이날 회의에서 안원규는 위원과 함께 독립전선의 통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봉대, 군사행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광복군과 의용대의 합동 촉구, 대미외교기관 외교위원부 설치, 미국 국방공작의 후원과 한길수의 국방봉사원 임명,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설립, 독립금의 납부 등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4월 27일 공동대회를 통해 조정되었고, 4월 29일 「해외한족대회 결의안」으로 발표되었다.¹³⁰⁾

안원규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의사부의 부위원장과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41년 5월 14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의 부위원장에 선임되어 활동하였고, 1943년 8월경부터는 의사부 위원장 대리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어 그는 1943년 9월 20일부터 1944년 9월까지 의사부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¹³¹⁾ 1944년 9월 30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의사부와 집행부에서 비서부재무부군사부조사부선민부교제부의 6부로 나누고 임원을 선정하였을 때 안원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¹³²⁾

1941년 9월 25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부의장 안원규는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승만이 독자적으로 외교위원부를 조직하고, 그 통신을 발간하고 별도로 지원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그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틀 아래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 사항을 통지하였다. ① 우리의 민족적 대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존경하지만, 우리는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귀하가 작가이자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파벌 싸움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친구들 가운데 몇몇은 이미 파벌 싸움에 참여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②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예산으로 매달 귀하에게 송금하는 1,200달러는 분명히 한미협회를 위한 할당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③ 귀하가 공급에 의지하는 비용은 액수가 얼마이든 반드시 고정 예산에 근거해야 하고, 귀하가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듯이 개인적인 요구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④ 만약 귀하가 우리 한국인들의 통합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귀하는 다른 곳에서도 많은 것을 얻거나 지원받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¹³³⁾

1942년 안원규는 미국의 정부와 의회, 중국의 국민당 등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주기를 거듭 요청하였다. 1942년 3월 1일 3·1절 경축행사에 참석한 안원규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 대리로 사회를 보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독립금을 모금하고, 마지막으로 조선독립, 임시정부, 연합국 승전, 루스벨트 대통령의 무운을 기원하였다.¹³⁴⁾ 또 1943년 6월, 안원규는 미국의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요청안을 제출하고 통과를 부탁하였다.¹³⁵⁾ 그리고 1944년 5월 17일에는 중국국민당 제12차 대회에 전보를 보내어 대회의 성공을 축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식 승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¹³⁶⁾ 아울러 그는 1942년 6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 대리로 연합군의 승전과 조국의 독립을 위한 9개의 결의안을 마련하여 반포하였다.¹³⁷⁾ 이것은 한인의 독립전쟁 참여를 독려하면서, 공동으로 항일투쟁을 하는 미국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고,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달라는 의미였다.

1943년 음력 1월 3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부위원장 안원규는 한미승전후원금을 모금하여 미국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자신도 상당액을 기연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금번 기망일(음력 1월 3일)에 우리 성심으로 몇 만원이 되든지 미국에 바쳐서 충성을 보입시다. 우리는 다 늙어서 출전하지 못함에 그 대신에 돈을 내어 미국 정부에 바쳐서 그 돈으로 폭탄을 사서 일본공습에 쓰인데 연합국 승전이 순성(順成)될 것이외다.”라고 기연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0원을 출연하였다.¹³⁸⁾

1943년 7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부위원장 안원규는 하와이주 당국과 협의하여 한인을 적국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시민 혹은 친선국의 국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하와이의 한인들은 재정 동결의 면제, 국방 봉사예 무차별, 단파 라디오 소유, 술 사는 허가, 국방 금지 구역 출입, 적의 공습으로 파상 당한 재산 배상 급 보험, 약재 구입 등의 제반 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¹³⁹⁾

1943년 8월 안원규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 대리로서 한인들이 미국 국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하였다. 그는 소재국 정부의 국방을 돕는 데 최고의 경의와 최대의 힘을 다해주도록 요청하였다. 또 시민·비시민을 물론하고 한인들이 국방원조자원금을 8월 29일까지 내주기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지방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기를 부탁하였다.¹⁴⁰⁾

안원규는 1943년 10월 호성저금회를 창립하였다. 10월 17일 국민회총회관에서 개최된 호성저금회 발기 모임에서 그는 임시회장에 선임되었다. 그는 10월 31일 개최된 총회에서 조제언·양유찬·김현구가 기초한 규칙을 통과시키고, 회비와 자본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하였다.¹⁴¹⁾

1943년 이승만과 동지회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나가 주미외교위원부를 재미한인민족운동의 중심으로 삼으려 하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 안원규는 ‘워싱턴사무소’의 설립을 통해 이에 대항하였다. 안원규는 1943년 12월 27일 이승만과의 공식 단절을 선언하고 외교를 담당하는

‘워싱턴사무소’의 설립을 공식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1944년 4월 6일 워싱턴사무소를 설립하였다. 그러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4년 8월 경 재미한인의 결속을 위하여 ‘주미외교위원부’ 대신 ‘주미외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추천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합의되지 않아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1944년 11월 17일 위원장과 위원을 통보하였을 때, 안원규는 김원용과 같이 하와이 대한인국민회를 대표하여 위원으로 선정되었다.¹⁴²⁾

한편 안원규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주미외교위원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자 와히아와에 본부를 둔 한국독립당 하와이지부 외에 별도로 호놀룰루지부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1944년 5월 21일 그는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에 모인 20여 인의 유지와 한국독립당 호놀룰루지부를 창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그는 호놀룰루지부 창립 발기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하여 최두옥 정두옥 정봉관 김익룡 도진호로 하여금 창립을 준비케 하였다.¹⁴³⁾ 그리하여 1944년 7월 30일 한국독립당 호놀룰루지부의 창립식이 개최되었을 때, 안원규는 사회로 약사, 취지설명, 선언서 낭독, 각처로부터의 축문 낭독을 하였다.¹⁴⁴⁾

1945년 4월 22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임원 선거에서 그는 임원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위원장은 김원용이었고, 부위원장은 정두옥이었다.¹⁴⁵⁾ 68세가 되는 고령이었기에 건강을 고려하고, 후진을 배려한 용퇴였을 것이다.

그가 해방 전 독립을 위해 벌인 마지막 활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정헌법 통과와 거국내각 출범을 축하하는 행사였다. 그는 이 축하회의 비용을 정두옥 최두옥 유동면과 함께 부담하였다.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는 개회 인도를 하였다. 이 축하회에서는 도진호의 「조선민족의 해방」이라는 연설과 현순의 “깨뜨리는 것, 새로 세우는 것 등의 철저한 이론과 분명한 사실과 재미스러운 예증을 갖춘” 「혁명」이란 연제의 강연이 있었다.¹⁴⁶⁾

안원규는 1947년 5월 20일 우연히 신병을 얻어 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불행하게도 5월 22일 오전 8시 45분에 별세하였다. 향년 70세였다. 장례식은 6월 24일 윌리엄장의소에서 거행되었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호상객護喪客이 구름같이 몰려 장소에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화한이 가득하고, 부의금이 거액에 달하였다. 오후 2시에 입관식을 거행하고 이어 발인식을 행하였다. 운구는 국민회 총회관 앞에서 잠시 정거하고, 사택을 경유하여 따몬헤드 기념공원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안장호安昌鎬 목사의 기도와 정의조 목사의 성경 일절 낭독으로 하관식을 거행하였다.¹⁴⁷⁾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임원들은 「고 안원규공의 약사와 추도사」에서 그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연합회 의사회장이 되고 총회장으로 피선하여) 허영적 직업적 양 기선에서 초월하여 희생적 복무를 실행한 고로 공익사업이 점차 발전한바 세상창해는 고금에 슬퍼하는 바이다. 공은 70년을 1기로 엄연히 거불귀 하시나 사회의 동량이 부러졌고 민족의 불행운을 슬퍼한다. 오호라! 공의 전공을 추상하니 산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깊도다. 이에 오등은 삼가 향기로운 꽃 한 타래와 다만 두소사 1폭으로 공의 영전에 봉정함.”¹⁴⁸⁾ 그리고 동해수부 홍언은 안원규의 서세를 슬퍼하며 다음과 같은 사조詞藻를 남겼다.

방초는 석양이오, 황토로 성분한 후, 고인이 가옵시고, 소식이 막막하니,
금강봉 푸른 바다에, 흰 달빛만 있더라.¹⁴⁹⁾



〈원문출처〉

이 글은 다음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조규태, 「하와이 이주민 안원규의 사회경제적 삶과 민족적 활동(1903-1947)」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3.

〈저자소개〉

조 규 태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조규태는 서강대학교에서 『1920년대 천도교의 문화운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의 교수와,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민족운동사학회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한인의 해외 이주 및 이주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맨티카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정체성(1916~1925)」(2020), 「1920년대 북간도지역의 천도교와 민족운동」(2020), 「1920년대 북경 지역의 흥사단원과 민족운동」(2021), 「미주지역 한인의 적십자 조직과 민족운동」(2021) 등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